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3:31-36

-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 나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즘 가나안(안나가) 교인이 많아 지고 있다.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치우쳐 있어서 교회를 뛰쳐 나온 경우도 많이 있다. 화려한 예배당과 감동적인 설교자들을 찾아 다녀 보지만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될 뿐 진정으로 영혼의 갈증과 고단한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당을 찾아 보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여 들고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가? 이다.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은 간단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나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이 들어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으라. 그러면 가나안 교인들이 몰려 올 것이다. 30절에서 위대한 설교자 세례요한이 외친 말이다. “그는(예수님) 흥해야 되고 나는(세례요한)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 시키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2.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판 가름 하신다.

I.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예수님.

본문 성경 한구절 한구절을 눈여겨 살펴보자.

-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오 만물 위에 계신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만물위에 계신분이시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오 만물을 통치 하신분이시다.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증언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심 참 진리를 보게 해 주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인생들은 방황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복원하시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되 한량없는 성령으로 말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덧입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이 덧입는 성령은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그의 말씀에 일점 일획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깊이 연구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다. 성부성자 간의 관계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이다. 만물을 받아 그의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세상 어느곳도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없다.

읽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여 주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반면에 인간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요 땅에 것을 말한다(31). 아무리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32).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가르치시면서도 들을 귀 있는자는 들으리라란 말을 반복하신다. 아무리 세례요한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는 땅에 속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존경 받는 바리새인이요, 지위가 높은 관원이라 할자라도 그는 육으로 난자에 불과하다(요한복음 3:6).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비교 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바울은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 했다.

고전 15:47-49에서 설명해 준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대단한 인간도 교회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감추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

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특별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이 눈에 들어와야한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즉 위대하고, 영화롭고, 지고한 분으로 높이 드러나야 한다. 그리할 때 그분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신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물과 친구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될 것이다.

II.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판 가름 하신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 된다.

1. 예수님을 영접한자는 어떻게 되는가?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참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 들인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며 허무하게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 들일 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며 산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에 목숨걸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인가의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그의 몸에 베인 사람이다. 그리 할 때 그의 인생은 항상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산과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

스가랴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

마가복음 11:22-23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세상이 김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는 끊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투자하며 산다.

2.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자는 어떻게 되는가?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하여 당황 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요한복음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본문 32-33절에서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 속하여 있는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들은 거듭 나야 된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장어로 만든 것이다. 요한 일서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든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다. 진리를 모르는 자의 인생은 거짓에 지배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위한 열심도 희생도 없다. 그 때 그 때의 자기에게 유익한대로 자기에게 편리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는데 진리에 속한자는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자, 진리가 무엇이나고 물었다(요한복음 8:37-38참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빌라도는 인류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3. 최후의 결과: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친 결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라고 하는 결과는 영생과 영원한 진노의 차이이다.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아래 머물러 살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흥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가 흥해야 하는데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은 자꾸 사라져 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크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기도로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높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삶속으로 물밀처럼 흘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으로 충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다스리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 드림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